

‘첫 사업모델 특례’ 1호... 언어 빅데이터 글로벌 리더 꿈꾼다

IPO간담회 - 플리토

Flitto

7일부터 청약 진행... 이달 내 상장 미국·유럽서 현지법인 설립 추진 중

언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 플리토가 국내 첫 사업 모델 특례 상장으로 이달 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플리토(대표이사 이정수)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정수 대표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공개(IPO)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상장을 위해 147만3486주를 공모하는 플리토는 지난 7월 1~2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오는 7~8일 청약을 진행한 후 7월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플리토의 공모예정가는 1만 9000원~2만3000원으로 공모예정금액은 280억~339억원이다.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이정수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기술 진화의 필수 요소인 ‘빅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플리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언어 빅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국내 첫 사업 모델 특례 상장에도 도전하는 만큼 플리토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과 동시에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



3일 이정수 플리토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공개(IPO)를 공식 선언했다. /플리토

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플리토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언어 빅데이터 비즈니스는 ▲플랫폼을 통한 고품질 언어 빅데이터 구축 및 판매 ▲플랫폼 내 언어서비스 제공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플리토는 173개국, 1030만명에 달하는 유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 베트남어 등 25가지 종류의 언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 언어 데이터를 요청하는 유저는 합리적 가격에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언어데이터 공급 유저는 금전적 보상과 타언어 학습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유저 수는 지금도 빠

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플리토는 언어데이터를 생산·공급하는 과정에 ‘집단지성’ 방식 도입, 플랫폼 유저들이 직접 수차례 감수를 진행해 최적의 언어데이터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언어 빅데이터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플리토는 집단지성으로 정제된 언어 빅데이터를 메타데이터, 주제별 분류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 뒤 국내외 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특히 고객사들의 재구매율이 높고 최근에는 텍스트 언어데이터와 함께 음성, 이미지 등 고부가 언어데이터의 수요도 늘어나는 등 플리토의 언어 빅데이터 사업은 본격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

최근 플리토는 CJENM의 디지털 스튜디오 ‘tvNDENT’와 다국어 영상자막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외 시청자가 CJ ENM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모국어로 즐길 수 있게 된 셈이다.

플리토는 IPO를 계기로 데이터 수집 채널 다각화, 거래선 다변화, 글로벌 진출 등에 속도를 높여 고속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자체 Open API 기술을 활용해 보다 방대한 양의 언어데이터 확보할 예정이다. MCN, SNS, 엔터테인먼트 등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

는 언어데이터 신규 수요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플리토의 Open API 기술을 적용, 서비스 제공에 따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언어 빅데이터의 규모와 종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산업 내 신규 고객사 또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그간 쌓아온 글로벌 고객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외 기업과 계약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플리토 측은 설명했다.

현재 플리토는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한 미국과 유럽에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중국과 일본에는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향후 IT 기업의 수가 압도적인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 언어 빅데이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이대표이사는 “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언어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는 국내 유일의 언어 빅데이터 기업인 플리토의 수혜로 직결될 것”이라며 “그간 쌓아온 고품질 언어데이터 확보 노후와 우량 고객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언어 빅데이터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등에 주력해 명실상부한 ‘언어 빅데이터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금융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D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5일까지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최근월 선물, 에스앤피500(S&P500), 유로스탁스 50(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TRUE 파생결합증권(DLS) 1471호’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 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6·12개월), 80%(18·24개월), 75%(30·36개월) 이상이면 연 6.4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 없다면 19.20%(연 6.40%)의 수익이 지급된다.

/채윤정 기자



키움증권

ELS 가입자 추천 이벤트

키움증권은 매주 출시하는 공모 ELS 가입자를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각각 50명씩을 추천해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현재 판매 중인 ‘키움 제1054회 ELS’는 예상수익률 세전 연 8.5%, 기초자산은 SK하이닉스 보통주와 EUROSTOXX50지수, HSCEI지수다. 만기 3년에 낙인배는 50%이다. 스텝다운 조기상환형 ELS로,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8.5%의 수익률로 상환된다.

/김유진 기자

현대차증권

15억 규모 ELS 1종 공모

현대차증권은 오는 5일 오후 1시까지 총 15억원 규모의 리자드 스텝다운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1종을 공모한다. ‘현대차증권 ELS 2023회’는 홍콩항셱지수(HSI), 스탠다드앤amp; 포스500(S&P500)지수, 니케이225(NIKKEI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발행 후 6개월 마다 한 번씩, 총 6차례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현대차증권 ELS 2023회는 2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발행 후 12개월 동안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2차 조기상환 평가일에 총 6.15%(연 6.15%)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대전 동구 '신흥 SK VIEW' 이미지.

SK건설

대전 '신흥 SK VIEW' 분양

SK건설은 오는 7월 대전광역시 동구 마을회관길 129 일원에 '신흥 SK VIEW'를 분양한다. '신흥 SK VIEW'는 전용면적 39~84㎡,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동, 총 158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09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면적구성은 59㎡ 582가구, 74㎡ 208가구, 84㎡ 306가구로 중소형 위주다.

대전 동구는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더불어 다양한 개발호재의 중심지로 꼽힌다. 대전역세권 개발, 원도심 활성화 사업, 2호선 트램환승역 예정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있는 곳이다. 특히 대전시에서는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흥 SK VIEW'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는 대동역과 신흥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다. 단지앞에 신흥초와 중남중이 위치해 있어 중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시킬 수 있는 안심통학권이다. 인근에 대동천과 대전천이 단지와 가까워 청정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각종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동구 충무로 259에 개관할 예정이며, 홍보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있다.

/이규성 기자

KSD, 애셋지 선정 '최우수 외화증권 대역상' 수상

미국·홍콩·일본 대상 서비스 제공 대역중개기관이 관리해 이용 간편

한국에탁결제원은 홍콩의 국제금융잡지인 '디 애셋(the Asset)'이 주최한 '2019 디 애셋 트리플 A(the Asset Triple A)'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우수 외화증권 대역서비스'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에탁결제원은 2018년 10월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활용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외화증권 대역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서비스는 현재 미국·홍콩·일본 시장 주식을 대상으로 씨티은행(Citibank, N.A.)이 대역중개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역자는 에탁결제원, 씨티은행(Citibank, N.A.)과 3자간 계약을 통해 대역대상 주식을 대역 전용계좌에 계좌대체하면 대역중개기



한국에탁결제원이 애셋지가 선정하는 '최우수 외화증권 대역서비스'를 수상했다. /한국에탁결제원

관이 자동으로 대역하는 구조다.

대역자는 차입자와 별도 계약이 불필요하고 대역중개기관이 상환보증·담보관리·권리관리 등을 관리해주므로 간편한 업무모니터링으로 쉽게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에탁결제원은 “예탁자의 수요와 보

관규모 등을 고려해 외화증권 대역시장과 대역증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 늘어나는 해외투자자와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올해 미래 유망업종 8개 기업, '코스닥 라이징스타' 신규 선정

한국거래소

수익·성장·기술 등 평가... 25사 선정

올해 5G 부품, 바이오인식 시스템, 2차전지용 양극재 등 다양한 미래 유망업종의 8개 기업이 신규로 '코스닥 라이징스타'에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춰 향후 혁신 성장이 기대되는 코

스닥 상장기업 25사를 '2019년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코스닥 혁신기업의 발굴·육성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라이징스타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거래소는 세계시장점유율,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재무안정성 등 요소에 대한 정량평가와 애널리스트가 참여한 현

장평가를 통한 CEO(최고경영자) 역량 평가 등 기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진행했으며,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기업에게는 연부과금을 지원하고 상장수수료를 면제할 뿐 아니라 IR(기업설명회) 개최 및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echo@